

# 아리산 신목(神木)

故 事 와 불 (연재 제52회) 김동일

▶ 거북이를 제외한 대부분 동물들의 수명은 사람과 비교하여 생각보다 짧다. 흔히 십장생(十長生)의 하나인 학(鶴)이 장수동물이라고 알고 있지만 의외로 사는 기간이 짧아, 야생 상태에서 그 수명이 40년 정도라고 한다.

생육조건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동물들의 평균수명은 대략 이렇다.

인간과 가까이 사는 개와 소는 약 20년, 고양이는 15년, 뜻밖에도 닭이 20여년... 백수의 왕이라는 호랑이도 수명은 짧아 20년 안팎이고 사자는 더 짧아 15년 내외이다. 덩치 큰 코끼리는 70년 그리고 장수의 상징 거북이는 약 180년을 산다.

▶ 그렇다면 나무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나무의 수명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수종에 따라 그 수명이 천차만별이기도 하지만, 평생을 대부분 한 장소에서 보내야 하는 특성 때문에 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주위 환경에 따라 생존기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굳이 수명을 분류해보면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천 년에 이른다.

식물학자들은 오래 사는 수종의 하나인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3,000년을 넘게 산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자라는 과정이 확인된 나무가 고사목(枯死木)이 되었다는 기록이 없어 정확한 수명은 누구도 잘라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메타세콰이어는 벼락을 맞지 않는 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 우리나라에서 성장이력이 확인된 고목(古木)을 보면 정선 두위봉의 주목이 1,400살, 삼척 도계읍의 느티나무가 1,000살, 속리산 법주사 앞의 정이품송과 서울 재동

에 있는 백송이 각각 600여년 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보통 2천년에서 3천년 사이를 산다고 하는 은행나무 가운데, 동양에서 가장 키가 크다는 용문사 은행나무가 1,100살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4,700살 가량인 미국의 브리슬콘 소나무(Bristlecone Pine)라고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일 높은 산 White Mountain에 있다는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삼림당국은 정확한 위치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하며, 적어도 5,000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타이완의 아리산(阿里山)은, 최고봉인 옥산(玉山, 3,952 m)을 중심으로 하여 섬을 종단하는 산맥의 총칭이다.

타이완 8대 관광지의 하나로 꼽히는 아리산에는 여러 종류의 고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거구의 편백나무 군락이 특히 유명하다. 타이완 정부는 이 중 나이가 3,000년이 넘고 높이도 50 m가 넘는 좌장격의 나무를 「신목(神木)」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불행히도 몇 해 전 벼락으로 수명을 마감했다.

수령 2,700년의 다른 편백나무가 그 뒤를 이어 「2대 신목」이 되었는데, 특이하게도 이 나무에는 나무줄기를 따라 굵은 전선이 내려져 있다. 낙뢰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이다.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높이 20 m 이상 되는 건축물에 피뢰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번개도 사람도, 나무건 건물이건 가리지 않고 그저 높은 것을 좋아하는 속성을 법으로 규제한 것일까? 살아있는 나무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는 아직 없지만..

〈김동일/소방기술사·소방시설협회 본부장〉